

힘찬소식

20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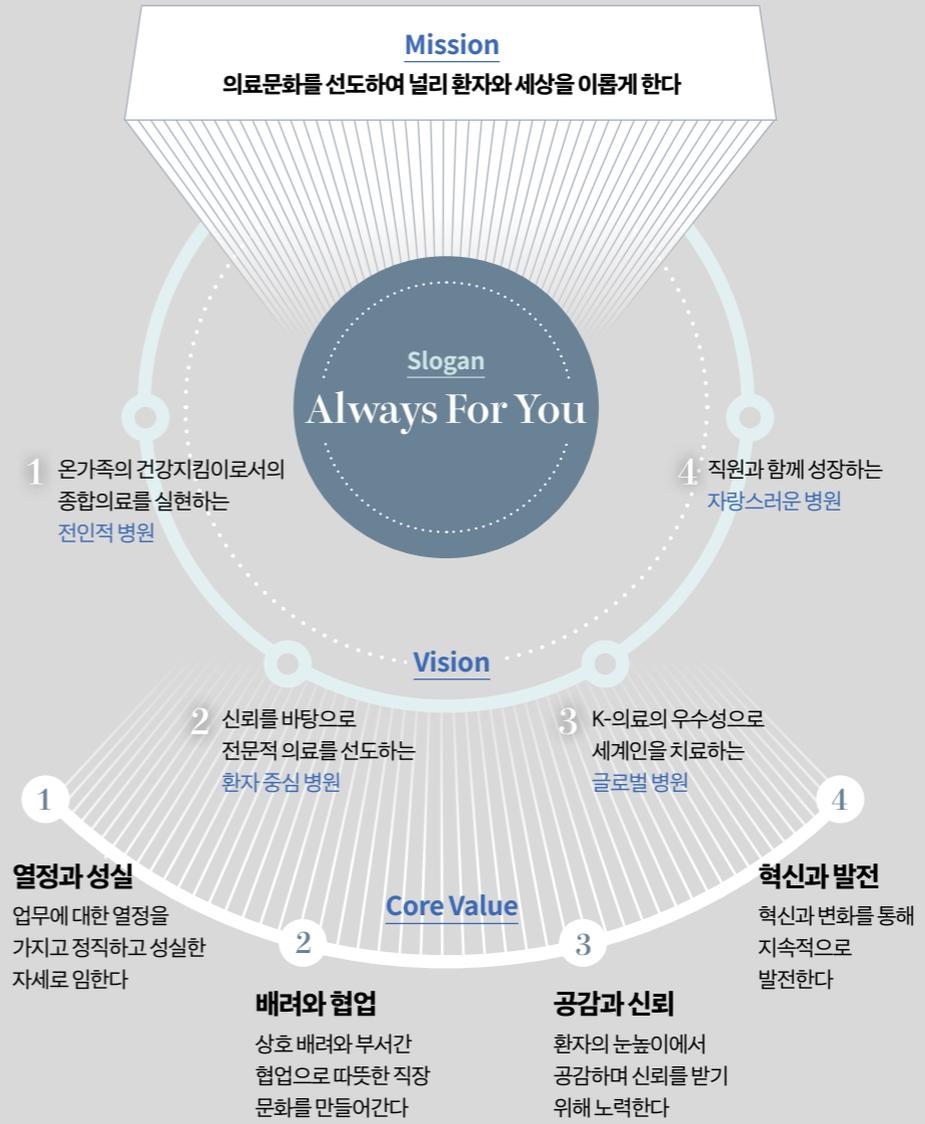
www.himchanhospital.com





Symphony No. 20

힘찬병원이 지난 20년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20년을 담은 No.20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1악장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20년의 역사를 이끈 힘찬병원의 '열정과 성실', 2악장은 상호 배려와 부서간 협업으로 따뜻한 직장 문화를 이끈 힘찬병원의 '배려와 협업', 3악장은 환자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 힘찬병원의 '공감과 신뢰'를 연주합니다. 마지막 4악장은 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 힘찬병원의 '혁신과 발전'을 들려드립니다. 이제 힘찬병원은 지난 20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에 K-의료를 선도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하는 힘찬병원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며 지금 Symphony No.20 교향곡을 시작합니다.



힘찬소식 20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02 2022, 힘찬병원의 오늘 04 사전으로 보는 20년 06 1악장 - 열정, 성실 20년 장기근속자들이 그린 다채로운 메리의 힘찬병원 09 지부심과 성실동력으로 삼아 함께 성장한 시간 10 2악장 - 배려, 협업 힘찬 걸음, 착한 경기 11 힘찬병원 여름 청소년 인턴십 12 3악장 - 공감, 신뢰 전국 병방곡곡의료서거지대 찾는 힘찬더터 14 4악장 - 혁신, 발전 #1 또 다른 새로운 도전, 해외진출 #2 관절척추병원의 선두를 달린다 #3 또 다른 20년의 시작, 다시 출발선상으로 18 앙코르

| 발행일 2022년 11월 25일 발행 | 발행처 힘찬병원(강북/목동/부평/인천/부산/청원) 1577-9229 | 기획 피얼퍼트너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태광피인디(070-8615-5661) | 표지 일라스트레이터 박민주

관절의학연구소
SCIE급 국제저널
77편

총 113편
국내외 논문 발표

2021년 3월
종합병원으로 발돋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강북, 강서, 목동, 부평, 인천, 부산, 창원)

14만건
무릎인공관절수술
(2021년 12월 기준 전지점 누적 건수)

로봇인공관절수술
10,000례 달성
(2022년 4월 기준 전지점 누적 건수)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증의료기관
(부평)

국내를 넘어 세계로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개원
몽골(2023년 개원 예정)

국내 병원 최초 준법경영
ISO 인증(목동)

2002



11월 25일 인천 연수동에 200병상, 6개 수술실을 갖춘 힘찬병원 개원

환자와 함께 걸어온 힘찬 20년

힘찬병원 20주년을 기념하며 언제나 당신을 위한 힘찬병원의 지난 20년을 되새기고자 한다

2004



2002년 특수무균수술복 도입에 이어 최소침습 무릎 인공관절수술 성공으로 의료계 주목

2005



개원 3년 만에 무릎 인공관절수술 1만례 단기 달성

2006



환자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직원전직교육 정기 실시

2008



의료진과 환자와의 친근한 유대감 형성을 위한 호돌이회진 이벤트

2006



심평원 발표 인공관절 치환수술 건수 통계에서 전국 1위 기록



수술환자들을 초청해 집도의가 직접 건강을 살펴드리는 제1회 홈케어데이 개최

2008



무릎 인공관절수술 3만례 달성 기념 수술환자·보호자 8천여명 초청 음악회 개최

2009



수술환자들을 모시고 효도온천관광, 숲체험 등 다양한 행사 진행

2013



목동힘찬병원 관절병원 유일 보호자 없는 병동 도입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강북, 강서, 목동, 부평, 인천, 부산, 창원)

2019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점검해 드리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15만례 돌파



장기근속직원들의 재충전과 친목을 위한 유럽여행 복지프로그램 매년 진행



한국형 선진의료기술을 전파하고 전문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의료진 연수프로그램 진행

2017



힘찬병원 주관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 초청 제1회 힘찬병원 정형외과 심포지엄 개최

2020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정확도와 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로봇시스템 선제적 도입 시행



힘찬병원 전 지점 의료진들이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제1회 힘찬병원 학술세미나 개최

2012



개원 10주년을 맞아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힘찬 약속 선언문 발표

2021



힘찬병원 주관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 초청 제1회 힘찬병원 정형외과 심포지엄 개최



인천힘찬병원 확장 이전해 18개 진료과, 2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재도약



20년 장기근속자들이 그린 다채로운 매력의 힘찬병원

힘찬병원의 시작을 함께한 20년 장기근속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현재 각자 소속된 힘찬병원의 모습을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하는 게 이날의 미션. 힘찬병원 2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과 소속 병원에 대한 애정으로 공들여 완성하기까지, 시종일관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했던 이벤트 현장을 담았다.



힘찬병원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해 각 지점의 장기근속자들이 함께 모인 건 이번이 두 번째. 10년 전, 힘찬병원 10주년 기념 이벤트로 힘찬병원에 대한 마음을 하트와 관절 모양의 케이크에 담아냈던 이들이 이번에는 일일 화가로 변신했다.

이날의 미션은 힘찬병원 각 지점의 실사 이미지를 참고해 각자 앞에 놓인 빈 도화지를 채우는 것. 본격적인 스케치는 부평힘찬병원 김연희 의료행정부장을 비롯해 인천힘찬종합병원 류미숙 진료협력팀장, 목동힘찬병원 정용희 진단검사의학과장에 이어 멀리 부산에서 온 부산힘찬병원 유일준 원무과장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창 시절 이후에 그림 그릴 일이 없었다거나 성적표에서 미술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등의 우려의 말들은 스케치와 더불어 빠르게 사라졌고, 조금 전까지 왁자했던 회의실은 실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모여앉은 화실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관절 척추에 특화된 병원의 장기근속자들답게 그림에서 빼대 역할을 하는 스케치에 유독 정성을 기울인 이들은 수정을 거듭하느라 도화지 옆에 지우개밥이 쌓여갈 무렵에야 채색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평면적이었던 각지의 힘찬병원에 컬러로 생명력이 덧입혀지고, 여기에 장기근속자 각자의 애정 어린 마음까지 보태지자 마침내 실사를 뛰어넘는 세상 단 하나의 힘찬병원이 완성되었다.

COMMENT



류미숙 인천힘찬종합병원 진료협력팀장

“인천힘찬병원의 설립 멤버였으니, 출발점부터 함께해 어느덧 20년을 맞았습니다. 그 사이 힘찬병원의 위상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시작은 병동간호사였지만, 방문간호사를 거쳐 지금은 종합병원으로 승격한 인천힘찬종합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타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을 이끌고 있지요. 병원과 제가 나란히 품을 넓혀온 20년인 만큼 제가 스케치한 인천힘찬종합병원에는 우리 병원만의 독보적인 ‘스케일’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유일준 부산힘찬병원 원무과장

“20년을 맞아 고백하건대, 저는 일찌감치 힘찬병원을 평생직장 삼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병원의 막내로 존재감이 미미했을 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수찬 대표원장님의 관심을 느꼈을 때 처음 마음을 먹었고요. 2015년부터 몸담은 부산힘찬병원에서 직원으로서 당연한 도움을 드렸을 뿐인데 병원 게시판에 장문의 칭찬 글을 남겨주시는 보호자의 마음에서 새삼 결심을 굳혔지요. 제가 담아낼 부산힘찬병원에도 그때 느낀 부산 사람만의 진한 ‘정’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연희 부평힘찬병원 의료행정부장

“인천힘찬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시작해 지금은 2008년 개원 때부터 함께한 부평힘찬병원의 의료행정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을 맞아 되돌아본 힘찬병원에서의 시간은 한마디로 성장의 역사였다고 생각해요. 초창기 자그마했던 물리치료실이 지금은 센터에 넓게 배치된 것을 비롯해 인천연수구에서 시작한 힘찬병원이 국내외로 하나둘 뻗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부평힘찬병원은 그 중심을 든든하게 받쳐준 지점인 만큼 특유의 ‘힘’이 그림에 묻어나길 기대합니다.”

정옥희 목동힘찬병원 진단검사학과장

“저는 20년째 한결같이 모든 검사의 기본인 혈액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동힘찬병원에는 2006년 개원과 동시에 합류해 이곳에서만 올해로 16년을 맞았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커진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탄탄하게 성장해왔다는 점에 부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병원의 성장을 바라듯, 오늘 그림으로 표현할 목동힘찬병원에도 ‘내실과 외연’이 함께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오롯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정형외과적 어깨 관련 수술 건수로는 내로라하는 김형건 진료원장. 병원장 재직기간을 포함해 공백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온 그는 자부심과 성실을 동력 삼아 자신과 병원이 나란히 성장하고 도약한 시간으로 힘찬병원과 함께한 14년을 요약한다.

**자부심과 성실을
동력으로 삼아
함께 성장한 시간**

인천힘찬종합병원 진료원장 **김형건**



김형건 진료원장은 2008년 힘찬병원 의료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현 인천힘찬종합병원의 전신인 인천힘찬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 지원했던 당시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힘찬병원은 관절·척추 분야에서 진료와 수술 건수는 물론 인지도 면에서 단연 탑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동기들과 선후배 사이에서도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손꼽혔죠.”

그렇다면, 그토록 ‘일하고 싶었던 병원’과 자그마치 14년을 함께해온 지금, 힘찬병원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김 원장은 힘찬병원의 위상이 오랜 기간 굴곡 없이 굳건하듯 힘찬병원을 향한 애정의 온도 또한 변함없다고 말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이 ‘함께한다’는 자부심으로 치환되었다는 정도. 여기에는 종합병원으로의 승격도 한몫했다.

인천힘찬병원은 2002년 개원 이래 그간의 치료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2021년 3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종합병원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등 특화 센터를 갖추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신장질환자들을 위한 혈액투석실에는 신형 고효율 투석기계를 비롯, 친환경 고효율 및 알러지 환자용 투석막과 환자 맞춤형 비늘을 사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투석환경을 구비했다. 340여 평의 건강증진센터에는 각종 신형 검사장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굵직한 한 줄로 남을 중요한 시기에 병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종합병원 승격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병원장으로 일한 그는 14년을 통틀어 이 시기를 가장 바쁘게 보냈다. 진료에 병원 경영 업무가 더해지면서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해 도시락까지 싸다니며 일했던 것. MBN 생생정보마당 <생생닥터의 왕진가방> 코너에 출연할 때는 무릎, 허리 아프신 농어촌지역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치료해드리는 왕진가방 주치의로의 활동까지 병행했다.

환자와 직원들 중심에 두고 성장해 온 20년

그는 힘찬병원과 함께한 시간을 반추했을 때 가장 먼저 환자와 직원들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힘찬병원에 들어온 첫해부터 종합병원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힘찬병원을 찾아오며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환자들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해온 직원들과의 추억이 지나온 시간에 빼곡하게 박힌 까닭. 이를 통해 새삼 시간의 부피를 체감하는 한편 의사로서의 보람과 사명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그는 20주년을 맞은 힘찬병원 장기근속 의사로서의 소감에도 환자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힘찬병원이 20년간 한결같이 정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모든 행보의 중심에 환자들을 둔 결과라고 생각해요. 종합병원으로의 승격만 해도 내과 질환까지 함께 살펴 환자를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도 치료 결과가 좋은 병원,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으로 더 나아가길 수 있도록 평생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찬 걸음, 착한 걷기 힘찬병원 직원들의 걷기 기부 캠페인



힘찬병원에서는 개원 20주년 기념,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힘찬 걸음, 착한 걷기>는 힘찬병원 전 직원의 누적 걸음수를 합산하여 100보 당 1원을 기부하는 방식의 걷기 기부 캠페인이다. 힘찬 관절을 연상시키는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관절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전 직원의 참여로 조성된 의미 있는 기부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공헌활동이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걸음수 측정 앱을 통해 직원들이 참여하고, 100보 당 1원으로 환산한 최종 기부 금액을 올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동기 부여를 위해 한해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장 많은 걸음수를 달성한 직원을 '힘찬걷기왕'으로 선정해 11월 25일 개원 20주년 기념식 당일 시상한다.

걸으면 따뜻해지는 <힘찬 걸음,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주변을 둘러보고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힘찬인으로 거듭나고자 오늘도 힘찬병원 직원들은 열심히 걷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창원 힘찬병원 정선혜 간호조무사를 만나 걷기 기부 캠페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MINI INTERVIEW

창원힘찬병원 간호조무사 정선혜

걷기 캠페인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기부하기가 쉽지도 않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 걷기 캠페인을 통해 큰 부담 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짧은 거리는 되도록 걸으면서 이동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해 뛰거나 근처 공원에 나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꾸 걷다 보니 삶의 활기가 생기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업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걷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걷는 이유?

처음에는 그냥 걷기 운동과 기부를 접목한 캠페인이 신기했는데, 10개월가량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걷는 것이 일상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기부가 다소 먼 얘기처럼 느껴졌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보람이 있고 더 힘이 났습니다. 보통 연초에 세웠던 건강 계획은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기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했던 큰 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힘찬병원은 병원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환원의 가치를 지키고자 의료인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에 꿈이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3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힘찬병원 여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절의학연구소 연구원과 참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미래 의료인을 위한 현장 힘찬병원 여름 청소년 인턴십 Himchan Summer Internship Program



2022년 제13회 참여

미국 The Stony Brook School 9학년(중3)

홍성재

의사가 되고 싶은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일까 하는 고민을 하던 중 병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인턴십을 경험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물리치료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MRI나 초음파 같은 진단 장비들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병동 회진을 돌고 진료를 참관하면서 다른 시선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경험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좀 더 단단해 진 것 같습니다.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안혜선

인턴십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의학 기초 강의, 의료진과의 질의응답, 의사 컨퍼런스 참석, 병동 회진 동행, 수술실 참관 등 생생한 의료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 진료과는 물론 MRI, 초음파, 엑스레이, 혈액검사 등 검사 전반과 물리치료에 대한 세분화된 체험교육도 진행합니다. 모집 학생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5명에서 많게는 4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매번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할 정도로 학생과 부모님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선정 과정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지속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각자 업무로 바쁘지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제7회 참여

성균관대학교 의대 본과 2학년

권재민

항상 의사를 꿈꿔온 저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수술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참관했지만 정형외과 수술실 안의 무거웠던 공기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꼼꼼함, 세심함 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나니 의사라는 진로와 연계해 교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더욱 깊이 있는 저만의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과 2학년으로서 임상수업을 듣는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고, 최근 뇌신경과학 아카데미에 참여한 이후로 신경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학창시절 소중한 경험을 안겨준 힘찬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의사의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의료 사각지대 찾는 힘찬닥터

흰 다리, 굵은 허리 펴고 힘차게 걷는 게 소원인 어머니들의 인생 이야기

힘찬병원은 자신의 병명도 모른 채 살아가고, 혹은 알면서도 치료방법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과 관절, 척추 주치의들이 아파도 참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힘찬 걸음을 찾아드렸습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일했지만 관절이 변형되고 병들거나 척추 통증으로 거동이 힘든 어머니들의 지팡이 없이 걸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이뤄드리고 있습니다.

KBS 6시 내고향 [내고향 닥터], KBS 굿모닝대한민국 [엄마를 부탁해], MBN 생생정보마당 [왕진가방] [내 인생의 꽃길], TV조선 공감다큐 [해바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특별한 치료 프로젝트로 희망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제주와 밀양의 환자분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KBS 6시 내고향 [내고향 닥터] 출연

2021년 4월 방송 <돌, 바람 그리고 어머니> 편

몸도 마음도 모두 행복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내고향 닥터를 만나 이렇게 걱정 없이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게 너무 꿈만 같아요” 제주 한림민속오일시장에서 만난 김희정씨(72)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한걸음 떼기 무섭게 밀려오던 무릎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매일 집에서 시장까지 왕복 한 시간을 거뜰히 걸어 다닙니다. 넉넉한 인심 덕분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틈이 없었던 배추가게에서 김씨는 인터뷰 내내 환한 웃음을 보였다.

40년 가까이 매일 쉬지 않고 좁은 시장 한 칸의 가게에서 홀로 장사를 꾸려가야 했던 김씨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을 얻게 되었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 주변 상인들이 장사를 도와줄 정도로 심해져 진통제로 버텼지만 진통제마저 듣지 않을 때 즈음 방송출연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김씨는 회상했다. 로봇인공관절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기간까지 3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지금은 진통제 없이도 잘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 휘었던 다리도 바르게 곧아져 가족은 물론, 시장 상인들과 단골손님 모두 깜짝 놀랄 정도라고 김씨가 많이 아팠을 때 옆에서 장사를 도와주던 상인 중 한 분은 김씨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 치료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제가 복이 많아 봐요. 좋은 사람 덕분엔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전히 농사지으랴, 장사하랴 바쁜 하루를 보내지만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하다는 김씨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제주 김희정

KBS 굿모닝대한민국 라이브 [엄마를 부탁해] 출연

2021년 10월 방송 <아픈 허리와 무릎을 이끌고 사과나무를 지키는 엄마> 편

힘찬병원을 만나 꽃길 걸어요!

가을 어느 날, 여전히 홀로 사과나무를 지키고 있는 흥판자씨(73)를 만났다. 남편과 함께 과수 농사를 짓다 혼자된 지 1년 남짓 됐다.

“돌이서 농사를 짓다가 혼자 하려니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사과를 붙들고 우는 장면이 방송에 나갔는데, 여기저기에서 걱정이 됐는지 안부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수술 전 허리가 아플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과수원 일이 무척 힘에 부쳤다. 수술 전 협착증으로 5분 이상을 걷지 못하고, 허리 뼈가 튀어나와 누울 때마다 배겨서 힘들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도 없지만 튀어나온 뼈가 없어져 반듯하게 누워서 잘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다리에 쥐가 잘 나고 통증 때문에 밤마다 깨서 주무르고 파스 붙이는 것이 예사였는데, 수술 후 지금은 꿀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SBS 오! 젊음 2022년 10월 26일(수) 첫 방송!

병원비 부담으로 아파도 참고 또 참으며 선풍 병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이 다시 고향을 직접 찾아갑니다. 개그맨 이승윤씨와 안소미씨도 함께 전국 엄마, 아빠들의 인생 스토리를 전하는 청춘패밀리로 활약합니다. 전남 무안과 함평, 강원 정선, 충남 보령과 당진, 경남 밀양에서 힐링 다구가 펼쳐집니다. 고향 부모님들의 일을 거들어 드리며 무릎과 허리 치료를 고민하며 전하는 따뜻한 에피소드가 매주 수요일 5시 50분, SBS 오! 젊음(오늘이 가장 젊음)에서 방송됩니다. 관절, 척추가 아파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힘든 여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려면 본인이 직접 또는 주위 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이메일: sbsgift2022@naver.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SBS 오! 젊음

SBS 오! 젊음 출연

2022년 10월 방송 <이제 나만 믿어요> 편

서로를 보듬으며 일생을 살아온 노부부의 소원 성취

평생을 서로의 옆을 지킨 무안의 노부부가 있다. 아내 정원례씨(79)는 온전치 못한 무릎 때문에 한 걸음조차 떼기 어렵다. 정씨의 걸을 지키는 남편은 아픈 아내를 대신 해 살림도 하고, 농사일까지 하느라 항상 분주하다.

아내는 60년 가까이 굴을 캐는 바다일과 밭일, 집안일까지 작은 몸으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녀를 키워냈지만, 수 년 전부터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기를 밀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지난 9월, 청춘패밀리가 찾은 무안의 노부부는 젊어서 가장 좋았던 날을 회상하며 아내의 건강만 되찾는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정씨는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진 상태라 지팡이 없는 걸은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 로봇인공관절수술 한 달 뒤 10월, 다시 젊은 시절 씩씩한 걸음을 되찾았다. “다리가 잘 구부러지고, O자 다리가 쪽 뻗어 신기해요. 아파서 갈 수 없었던 남편과의 여행이 기다려져요”라며 웃으며 퇴원 소감을 전했다. 아내의 건강이 가장 큰 소원이란 남편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선하다.

방송 촬영 당시 더 심각한 허리 협착증 수술을 먼저 받았는데, 방송 이후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연달아 받게 됐다. “방송 촬영 때 하는 빈말인 줄 알았는데, 방송 나가고 한 달 뒤 힘찬병원에서 로봇인공관절수술을 추가로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그렇게 금방 이뤄질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은 새 몸을 얻은 것처럼 편하다고 한다.

굵은 허리도 유모차를 의지하며 간신히 걸었지만 지금은 허리를 펴고 두 발로 성큼성큼 걸으니 그야말로 인생이 바뀌었다. 방송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깨끗하게 세워진 허리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활짝 펼 것이라고 말하는 흥씨의 밝은 미래에 미소가 절로 그려진다.



무안 정원례

#0

“좀 더 가까이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순 없을까?”

힘찬병원을 시작하게 된 첫 질문이었다.

20년 전 전직 대학교수들과 함께 대학병원급 전문성과 이용하기 편한 접근성을 갖춘 병원을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난 2002년 인천 연수구에서 힘찬병원의 첫 문을 열었다. ‘대학병원급 실력을 갖춘 가까운 병원’이라는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 거점 병원들을 개원해 온 힘찬병원은 어느덧 올해로 성년에 접어들었다. 현재 전 지점 무릎 인공관절수술 누적건수 14만 건, 무릎 관절내시경 12만 건, 척추수술 6만 7천여건(2021년 12월 기준)을 달성하며 새로운 임상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시스템을 접목해 새로운 수술트렌드를 견인해나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로 진출해 K-의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몽골병원과 인천힘찬종합병원 심혈관센터 개원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씩씩 달려가고 있다.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힘찬병원. 지난 20년의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또 다른 20년의 출발 선상에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본다.

또 다른 새로운 도전, 해외진출

#1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병원 힘찬관절척추센터

힘찬병원은 2018년 11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대학병원에 힘찬관절척추센터를 개소했다. 병원급 최초로 국내 병원의 브랜드를 달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의 진출모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3명의 한국 의료진과 행정직원을 직접 파견해 수준 높은 한국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병원 내 센터 중 가장 많은 시술과 수술을 시행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9년 11월에는 300평 규모로 치료공간을 늘리는 그랜드 오픈식에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샤르자 국왕이 직접 참석할 정도로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개소 2년 만에 외래환자 2만 명을 돌파하며 현지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물리, 재활치료센터(Physiotherapy center)를 200평 독립공간으로 구성해 다양한 관절, 척추 질환의 치료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샤르자 힘찬관절척추센터 그랜드오픈식 (가운데부터 샤르자 국왕,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박혜영 상원의료재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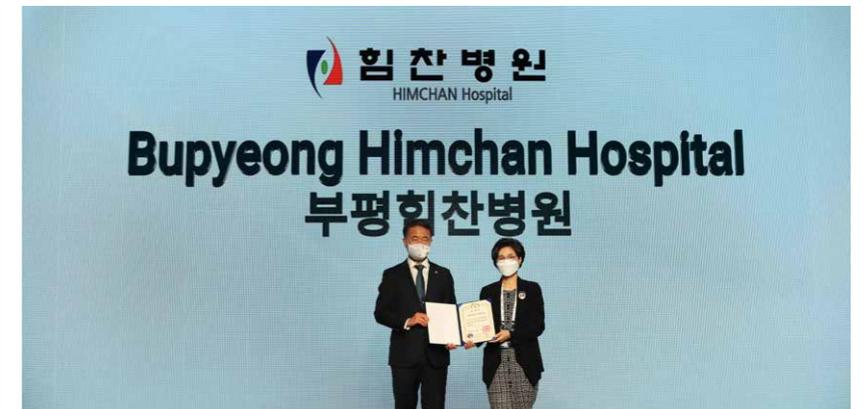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

2019년 11월에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은 국내 병원에서 단독 투자를 통해 설립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약 7,000평 부지와 2,700평 규모의 건물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신경과 등의 진료과와 100병상을 갖추고 있다. 국내 병원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현대식 시설과 의료장비를 구비해 개원 당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부하라 힘찬병원 개원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중앙아시아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의료기술을 현지에 전수하는 다양한 교류도 본격화되었다.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해외진출은 대통령 표창이라는 또 다른 뜻깊은 결실을 맺어주었다. 상원의료재단 부평 힘찬병원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하고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받은 것이다.

힘찬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관절·척추병원의 선두를 달리다

#2



전인적 치료를 위한 종합병원 도약

힘찬병원은 개원 20주년을 계기로 관절·척추병원의 특화는 살리되 고령 환자들이 다른 질환을 동반했을 때도 전원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으로서의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2002년 인천 연수구에 개원한 인천힘찬병원은 관절·척추병원으로 18년 외길을 걸어오던 2021년 3월 인천시 남동구로 확장 이전하며 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18개 진료과목으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로봇인공관절센터, 내시경센터, 물리치료센터 등 전문치료센터를 갖춰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365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개소한 관절의학연구소는 관절염 예방, 치료, 재활 등 관절질환 전반에 걸친 임상정보수집과 연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SCIE급 국제저널에 77편 게재를 포함, 총 113편의 국내외 논문을 발표해 연구성과를 치료에 접목해 의료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추후 심혈관센터를 비롯한 내과 계열 진료를 확대하고 비뇨의학과 등 외과 계열도 보강할 계획이다.



인천힘찬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

로봇인공관절수술 1만례 달성

힘찬병원은 2020년 6월 목동힘찬병원에 처음으로 로봇인공관절수술을 도입하며 현재 전 지점 총 11대의 로봇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 이는 의사와 로봇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수술 성공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2021년 7월에는 도입 1년여 만에 전 지점 누적수술건수 5천례를 달성하면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데 이어, 도입 22개월 만인 2022년 4월에는 1만례(4월 30일 기준 전 지점 누적수술건수)를 달성하며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동힘찬병원은 무릎 내측 일부만 닳은 환자에게 손상된 연골과 뼈만 부분적으로 치환함으로써 정상적인 관절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고난도 부분치환술에도 로봇기술을 접목해 환자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또 다른 20년의 시작, 다시 출발선상으로

#3

2023년 몽골 울란바토르 힘찬병원 개원 준비

힘찬병원은 2023년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추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개원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의료제도, 법, 관습, 세금, 허가사항 등을 검토 중이다.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한국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신뢰도를 쌓고 이를 통해 힘찬병원이 해외 진출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힘찬병원의 꿈은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새로운 20년 미션과 비전 정립

2022년 새해 힘찬병원은 새롭게 미션과 비전을 정립했다. '의료문화를 선도하여 널리 환자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 아래, 온 가족의 건강지킴이로서 종합의료를 실현하는 전인적 병원,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적 의료를 선도하는 환자중심의 병원, K-의료의 우수성으로 세계인을 치료하는 글로벌 병원,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병원이라는 4가지의 비전을 세운 바 있다.

또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위해 열정과 성실(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배려와 협업(상호배려와 부서간 협업으로 따뜻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간다), 공감과 신뢰(환자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혁신과 발전(혁신과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을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힘찬병원 전 직원은 언제나 환자와 직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는 병원이 되자는 의미의 새로운 슬로건 'Always for you'를 되뇌이며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본다.

몽골 울란바토르 힘찬병원 조감도



[인선명(간호장교)의]



김봉욱 병원장·의료원장

귀한 뜻으로 인천에서 시작된 힘찬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관절과 척추 분야에서 쌓아 온 최고 병원의 역량을 바탕으로, 온 가족에게 믿음직한 건강지킴이가 되기 위하여 2021년 3월에 개원한 인천힘찬 종합병원은 탄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찬가족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태균 병원장

Always for you 우리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지향해야 합니다. 힘찬병원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명성과 시간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힘찬병원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환자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선도적인 힘찬 걸음을 내딛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 7병동 수간호사

힘찬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은 바로 지난 20년간 헌신과 노력으로 다함께 성장해온 기억일 것입니다. 더욱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소통하는 병원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영애 님(63세·부산시 금정구)

힘찬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찬병원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원장님들의 자세한 설명과 정확한 치료, 직원분들의 친절함 서비스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이 힘찬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박신원(간호사)의]

[박연미(간호사)의]

고한승 병원장

“힘” 차게 달려온 20주년을 맞이하여 “찬” 란하게 기억될 힘찬의 이름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병” 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매일의 각오로 “원” 탐인 힘찬병원,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강복원(간호사)의]

이광원 병원장

힘찬병원이 스무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종합병원 도약과 해외병원 개원 등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과 열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힘찬병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동안 이곳에 쏟은 모든 임직원들의 수많은 땀과 눈물, 헌신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숙진 7병동 주임간호사

관절 척추 건강을 위해 달려온 힘찬병원의 20살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재형 6병동 간호사, **권이숙** 님(76세·서울시 강남구), **조민아** 6병동 간호사

김재형&조민아 간호사 힘찬병원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병원과 함께 노력하며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김영자 님(77세·서울시 강서구)

힘찬병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수많은 병원 중에서 고민하다가 가족 소개로 힘찬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수술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찬이라는 이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퇴원 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번창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주세요.

권이숙 님

20년 동안 많은 경험이 쌓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돼 안심이 되고, 간호사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분도 좋습니다. 개원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장원명(간호사)의]

한성훈 의료원장

힘찬병원의 역사에 함께 기록되고 있어 영광입니다. ‘의료문화를 선도하여 널리 환자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병원 미션처럼 믿고 선택해주시는 병원의 의사로서 항상 환자를 우선하며 책임감 있는 진료를 하겠습니다. 힘찬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100년 전통의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Always

이선명 물리치료팀장

“힘” 차게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는 자랑스런 힘찬병원의 스무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찬” 찬히 환자들을 정성껏 살피고, 마음을 다하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고 늘 자랑스럽습니다. “병” 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원” 하시는 일들 모두 이뤄내는 우리 힘찬 병원의 앞으로의 20년을 응원합니다.



유찬협 님(69세·경남 사천시)

힘찬병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원들이 가족처럼 돌봐주셔서 감동적이고, 친절함에 감사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직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병원이 계속 번창해나가길 바랍니다.

For You

[박경민(간호사)의]

서동현 병원장

대학에서 전임의에 이어서 군 중견의 과정을 마치고 사회 첫 직장으로 힘찬병원을 만났습니다. 새내기였던 제가 지금은 외과의사로서 무럭무럭(^^) 성장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속에서 소중한 삶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해온 힘찬병원이 자랑스럽고 저 또한 부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정 외래 간호과장

힘찬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며 20년을 함께한 저 자신에게도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이룰 힘찬병원과 힘찬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옥례 (81세), **이금녀** 님(79세·경기 부천시)

안녕하세요. 이옥례, 이금녀자매입니다. 힘찬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관절과 척추 주치의로 여기며 치료를 받아오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찬소식

20th Anniversary Special Edition
www.himchanhospital.com

